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복·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우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3월 10일(월) 제 3050호



전북도·원광대·한국생산성본부 (주)참프레 업무협약식
 7일 도청서 열린 전북도·원광대·한국생산성본부-(주)참프레 유학생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원광대 박성태 총장, 한국생산성본부 박성중 회장, (주)참프레 김재운 대표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4개 기관 간 유학생 취창업 연계 정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도,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생태계 구축

도·원광대·한국생산성본부·참프레, 유학생 취업 생태계 조성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활용...글로벌 인재 유치 강화
 도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인재 유치...지역사회 정착 유도

전북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도는 7일 원광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지역 내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박성중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김재운 ㈜참프레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은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취·창업 생태계 구축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지원 △원광대학교의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학-기업-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계약학과를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으며 졸업 후 도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줄여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전북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지 기자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기소 시점 잘못’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지난 7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견 1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기소 시점 잘못’

내란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 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지역관광 활성화 위해 20개 기관과 지혜 모아

도·시군·관광재단 관광 정책협의회 및 관광포럼 개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발전 견인

전북자치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도는 7일 전주 왕의지미에서 도와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 및 관광포럼'을 열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각 기관별 올해 주요 관광정책과 협력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시군 연계 운영 ▲특별한 관광지 영상홍보 마케팅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시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에서도 전주시에 '완산병커더 스페이스' 운영, 군산시의 'K-관광성 육성사업', 익산시의 '하림+투어 패키지 시티투어'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도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 관광포럼에서는 전주대 최영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운 연구위원과 지속발전포럼 홍창식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전북관광의 현황 진단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성운 연구위원은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정책대상·전략을 명확히 설정한 집중 공략을 강조했다. 홍창식 대표는 개인화·맞춤형 여행 증가 등 2025년 주요 관광 흐름을 소개하고 지역 간 관광연대(DMO) 강화, 관광객 유입 성과보상제 도입, 대도시권 인적 교류 확대, 스마트 관광 도입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김은지 기자

‘고향에 사랑을’...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총력

전북자치도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 추진에 본격 나선다. 도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결과 93억2천만원을 모금, 2023년 84억7천만 원 대비 8억5천만원이 증가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높은 성과로 평가된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역은 정읍(11억여원), 임실(10억여), 부안(8억여) 순이며 수도권(43%), 전북권(29%), 영남권(10.7%) 거주자의 기부가 많았다.

주요 기부 연령층은 40대(28.7%), 30대(28.1%), 50대(28%)로 나타났으며, 기부자의 97.5%는 전액 세액 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출인다. 23년 11월부터 도 분청에서만 추진해 온 '전북사랑 TF'를 시·군까지 확대해 도와 시군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 전북사랑도민제도 활성화와 연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생생장터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고향군은 지정기부사업으로 '고향의 별 육성사업' 시즌 1-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을 추진,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당초 예상 시기보다 빠른 2주만에 최단기간으로 모금액 목표를 달성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담례품 분야에서도 기존 농·축·수산물 위주의 물품형 담례품 외에 도 전북의 특색있는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형 담례품을 발굴한다. /최준호 기자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한 공기의 밥과 반찬이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를 때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한민국 농어민과 항상 함께 합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

道, 나무 450만 그루 식재...4월까지 조림 완료

1천905ha 면적에 450만 그루 심어...경제적·공익적 가치 높여 지속가능 산림자원 조성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25년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총 181억 원을 투입해 1,905ha 면적에 4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경제림 조성, 생활권 내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 기능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 주요 조림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심어 안정적인 목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림 조성'(1,442ha) ▲도시와 생활권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큰나무 조림'(261ha)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조림'(147ha)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내화수림대 조성'(55ha)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며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및 관광지, 생활권 주변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를 심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산불 취약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조림도 확대된다. 섬 지역에는 해풍과 염해에 강한 자생 수종을 식재해 산림 복원을 추진하며, 지역별 대표 수종을 활용한 특화림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조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량 묘목을 사전에 확보하고, 최적의 식재 방법을 적용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조림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장연국도의원 파워리더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장 의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 펼치겠다"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민선 8대)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5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밑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은 한국언론인협회 등이 사회, 정치,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의정 활동을 펼쳤고, 현 소속인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선도...주4일 출근제 도입

다자녀 공무원 보육휴가 확대·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 지원책 강화...민간 기업에 긍정적 영향 전망

전북자치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공무원의 보육휴가 확대, 손자녀 돌봄시간 신설,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며, '전북형 주4일 출근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일·육아동행 근무제'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2023년 162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7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보육휴가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간 5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 공무원은 7일, 3자녀 이상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난임치료시술휴가(2~4일)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검진 시 동행휴가를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5일간의 가족행복휴가를 부여된다.

상반기에는 '일'과 '아이 돌봄'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가족형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 평정 가점을 부여(0.5점)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북형 주4일 출근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지 기자



도, 공공민간 협력 체계 강화...'아동행복 정책 간담회' 첫발

전북자치도도가 아동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 논의에 나섰다.

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전북교육청, 아동복지사업 위탁기관, 민간법인 등 10개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아동행복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복지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정보 단절, 사업 간 연계 부족, 중복 지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경 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아동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관 정보공유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아동복지 정책의 효과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전국 최초 '우리 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운영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도내 소아청소년(만 18세 이하)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리 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 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기존 '영유아 스마트 구급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대상자의 정보를 데이터화 해 119종합상황실에 등록하면, 대상자가 119를 이용할 경우 질병 정보 등이 출동 대원에게 전달된다.

올해부터 이 서비스의 이용 연령은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됐으며 법정 희귀질환, 소아암 등 특이질환만 제공받던 서비스를 응급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아 청소년 환자들은 증상 표현이 부정확하고 자녀가 아픈 상황에서 보호자가 당황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병원 이송 및 현장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소방은 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2회, 전문의를 초청, 구급대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도내 소아과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는 보호자가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또는 119에 직접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소아청소년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오숙 본부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탄탄한 안전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

로도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강성희 전 국회의원, 대선 출마... "정권교체 이루겠다"

'입틀막'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진보당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하던 중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입틀막'을 당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저녁 진보당의 대통령 선거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출마 자격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탄핵은 확정적이고 21대 대선은 열리게 되겠지만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악하는 극우의 비명이 계속되고 있다"며 "살벌한 언어로 국민을 협박할수록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정권교체 열망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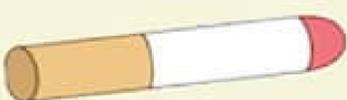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현재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김관 기자

봄철 화재

부주의로 인한 화재 함께 실천한다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흡연하기



조리중 자리비우지 않기



취침전 향초, 촛불 등 끄기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전북,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 2년 연속 선정

전주·익산·남원시 참여 확정, 3억2천 사업비 확보...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본격 추진

청년카페·취업 워킹업 프로그램으로 구직의욕 회복부터 관리까지

전북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청년 취업 지원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 익산, 남원시 등 3개 지역이 참여 지자체로 확정됐으며, 국비 2억6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특히,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해 편안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카페에서는 ▲개인별 맞춤 상담 ▲멘토링 ▲구직 의욕을 끌어올리는 '취업 워킹업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추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서 목표였던 1천22명을 크게 초과한 1천602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특히, 전주에서는 835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는 전주·익산·남원시에서 약 900명의 청년을 모집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거주지 관할 시청의 일자리 지원 부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구직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고소득전문직 체납자강력 징수나서

전국 최초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급여 조사... 13억3천만원 압류

전북자치도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 직장 급여 압류'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조사해 13억3천만 원을 압류하고, 65명에게서 1억4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 1월 13일부터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 관리 대상 482명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 월 소득 1억원을 신고한 병원장 A씨를 비롯해 법무법인·회계법인 근무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급여를 직접 압류하여 해당 직장에 통보,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상당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 급여 압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매출채권 추적 등 전방위적인 체납징수를 강화하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체납자의 은닉된 금융재산을 추적하고, 필요시 가택수색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 대폭 확대...신규여성·청년도 혜택

농어업인 개별 지원 변경...여성·청년 농어업인도 해당, 신규 농어업인 주소·경영체 등록 요건 2년→1년 완화

전북자치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신규 정착 농어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제 막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

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자치도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상 ▲1인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3인 가구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인 경우 인원수만큼 지원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인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업인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에 42억 규모 특례보증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진안군 및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중관 이사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위

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특별 출연하고, 총 4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오는 10일부터 상담접수를 시작하는 진안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운영자금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금융으로 해소를 위해 약 55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산사태 취약 지역 중심 사방사업에 336억 투입...장마 전 완료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우선 추진해 6월까지 완료 목표...국비 235억 포함 총 336억원 투입, 전년 대비 25% 증액

전북자치도가 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에 조기에 착공해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완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방사업 예산으로 국비 235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101억 원을 더해 총 336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규모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여름 익산, 군산, 완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농경지와 주택 피해를 막는 등 사방시설의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



ha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으로, 모두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1천 221개소의 기존 사방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사방시설의 기능이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방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토주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전주상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간담회 열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6일 전주 이종분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정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의 회장단과 소정미 지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임원단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 논의 ▲전북 기업들의 홍보와 판로 확대 지원 도모 등이다.

소정미 지회장은 "여성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이 큰 도움

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태 회장은 "전북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여성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혁신 역량 고에 앞장서고 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지속가능 연금정책 모색 기념사업 추진

설립 30주년 기념...누리집 개선·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NPS 포럼 개최 등 국민과 소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연구원(www.npri30.com)을 개설해 국민 누구나 연구성과를 쉽게 접하고, 국민연금의 발전 과정과 연구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내용을 기획했다.

누리집은 ▲자녀나 30년 ▲함께하는 국민연금 ▲나이갈 30년으로 구성돼 과

거·현재·미래의 국민연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연금연구원원의 비전을 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결과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명씩을 선정해 4월 중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5월 중 '제2회 NPS 포럼'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월 중순에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제2회 NPS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연금개혁 이슈를 되짚어보며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일간 진행되는 포럼은 10주년을 맞이한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전문학회 컨퍼런스(3회), 전·현직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연금제도 정책 간담회 등이 이어진다.

한편 국민연금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표창식도 진행한다.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30주년을 계기로 삼아 연구원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원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익산군산축협, 2024년 계통사로 챔피언상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이 지난 5일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3월 정례대회에서 '2024년 계통사로 챔피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계통사로 챔피언상은 농협계통사로 이용조합 포상을 통한 전이용 유도 및 경쟁력 강화와 계통이용률 100% 축협의 사기진작, 사업추진 동기부여, 우수조합 사례전파를 통한 계통이용률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익산군산축협은 2024년 연도말 기준 계통사로 이용률 100% 축협으로써 5만 톤을 달성했으며,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평가항목에서 사료 취급량, 성장률 및 취급률(점유율)등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받아 계통사로 챔피언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준호 기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는 2025년 제1차 BI보육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4일부터 모집한다.

신청은 wbiz.or.kr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서류를 다운 받아 메일(ebjoc@wbiz.or.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3년간 입주 가능하며, 창업보육공간 및 다양한 교육, 사업화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wbiz.or.kr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서류를 다운 받아 메일(ebjoc@wbiz.or.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1일 1영단어·영문장으로 실력 UP!

매일 실천하는 단어·하루 5분 영문장 학습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영어 기초학력 향상 기대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누리집 부서 자료실 학습도움자료 탑재... 학생 흥미·수준 맞는 자료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초·중등 영어와 학력 신장을 위한 영단어, 영문장 학습하기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초등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은 1일 1영단어 알기 실천 프로그램으로 매일 실천하는 단어 학습을 통해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및 영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초등영어 학력 신장을 위한 '오늘의 영단어로 실력 UP!'은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초등 권장 영단어 800개와 인공지능 기반(AI) 팽독 학습앱의 학년별 영단어 366개 영단어 목록을 모든 초

등학교에 제공하고, 단위학교 영단어 학습 계획을 통해 각 학교별로 운영된다. 초등 알파벳 파닉스 프로그램과 영어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영어 독서활동과 연계했을 때 학습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영문장으로 레벨 UP!'은 중등 영어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로 영어학습 동기유발과 문장력 증진을 통한 영어 자신감 향상이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WinC(윈크)'로 'We increase confidence in English(우리 모두 함께 영어 자신감 향상)'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틈새시간 또는 수업시간을 활용해 교훈이 담긴 명문장, 명언설, 교과서 핵심 문장, 관용구 등 하루 5분 영문장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 활동으로는 100 Challenge(100일동안 100문장 암송 도전하기), 하루 한문장 학습 로그 작성하기, 명문장 필사하기, 명언설문 암송하기, 하루 한 문장 암송 녹음하기, AI 코스웨어 활용 학습하기 등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누리집 부서 자료실에 학습도움자료를 탑재해 학교에서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

는 자료를 손쉽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연계 활동으로 운영할 경우 과정 중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및 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 맞춤형 영어학습 프로그램, 교원 국외연수,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영어학력 신장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지역기업지원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수요조사 통해 기업·연구기관 연결해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 기술비즈니스센터가 지역 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전북대 기술비즈니스센터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가 보유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맞춤형으로 소개한다. 기술비즈니스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기술이전과 기업-대학 간 공동연구, 후속 모니터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14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에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mismatch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의 4개 대학이 13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주대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선정되어 탄소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왔다. 탄소인력양성사업단 총괄교수(이명규 교수)는 "탄소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도내 탄소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의대 정원 3058명 1년 만에 '제자리'... 교육 인프라 투자는 계속

교육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공개... 증원 규모에 따른 투자금 조절 계획 1년 만에 '없던 일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도 의대에 투입하기로 했던 투자는 원안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학장이 건의한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등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으로 회귀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밝힌 대학 총장들은 이미 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향후 증가할 의대생 규모를 고려한 투자였기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리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각 대학 의대 교

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계획으로 2030년까지 5조원가량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수 1000명 증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의대와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는 진행 중이다. 교원은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이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9개교가 300명, 사립대 23개교가 295명 등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계획대로

추진된다.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인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는 모든 국립대 병원에서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사립의대 부속병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만 예산 1728억원을 투입한다.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요으로 역량 강화에는 1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배움에 소외된 학생 없도록

학업 중단 위기 학생·기존 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는 학생 대상... 개인 특성·필요 맞춤형 대안교육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2025-2026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역 2곳, 민간위탁기관 18곳, 전국단위 4곳 등 총 24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규 교육

과정과는 다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기존 교육 시스템과 맞지 않는 학생들이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

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탁교육기관은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등을 구분해 운영하며 학급당 정원은 15명 이하이다. 위탁기관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진로활동, 상담치유, 인문학, 문

화예술중점 등 기관의 특색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자율활동(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수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1일까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18교에서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숙사 화재대피훈련은 실제와 같은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 시간인 야간에 실시한다. 야간에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한다. /최성민 기자

생활 속 작은 실천

ESG 실천

불필요한 이 메일 삭제

일회용품, 현수막 없는 행사 운영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사무실 내 일회용품ZERO



“자연과 친구하자” 익산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유아숲체험원’과 ‘숲해설’을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가수시반 단체를 모집한다.

유아숲체험원은 단순히 놀이터를 넘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숲속 교육 공간이다.

시는 아이들의 전연성 성장을 돕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8,500만 원을 투입해 옹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과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에 트리하우스, 네트놀이대, 전판데크, 통나무 건너기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숲해설가가 ▲원광대학교 수목원 ▲옹포 산림문화체험관(최복단 녹차밭 일원)에 배치돼 연례별, 계절별로 색다른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전수조사 실시

군산시가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이날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저장강박은 각종 물건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최근 1인가구와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립·은둔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흥반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위기 상황 대응관리 체계 구축 ▲저장강박 가구의 위기 정도 진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조기 개입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위기 여성 주거 지원...안전한 삶 돕는다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사회복지관을 포함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된다.

위기 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학대, 이혼 등의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 문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족의 폭력·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여성 ▲스토킹·데이트 폭력·디지털 범죄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 등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최대 38만원(아동 동반 시 48만원)까지의 월세 지원(최대 3개월,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기초서비스 지원(가구당 월 2만원, 아동 동반 시 10만원 추가 지원) ▲사회관리 운영비(1사레당 1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사회복지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이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역산업 이끌 유망기업 모집

기술력·잠재력 풍부한 유망 강소기업 발굴... 선정 기업 3년간 사업비 5,000만 원 지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원,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군산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규 모집은 지난 7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이후 서류,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3개 사, 강소기업 1개 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600억 원 미만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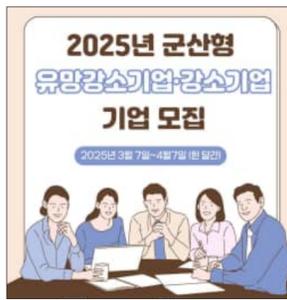
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거점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도 4%까지 확대 지원받게 된다.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R&D)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 원을 1년간 받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9년에 도내 최초로 시행한 후 올해까지 7번째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맞춤형 육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신성장산업과(063-454-2745) 또는 전북산학융합원(063-472-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전북산학융합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개조 지원

사업비 11억 8,000만 원 투입... 엔진 교체 60대·전동화개조 5개 등 총 65대 건설기계 지원

익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행된다. 올해 총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엔진 교체 60대와 전동화 개조 5대 등 모두 65대의 건설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티어(Tier)-1 이하 적용을 받은 엔진 탑재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전동화 개조 지원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전동화가 가능한 지게차 모델의 소유자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로 온라인(mecar.or.kr), 문자 전송, 환경영향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엔진교체 지원 사업 외에도 전동화 개조,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등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하늘채 더퍼스트·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인화 행복주택·기타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별로 15가구 모집

익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신규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되며, 미혼청년은 1986년 1

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된다.

올해 지원 가구는 60호로 ▲익산역 하늘채 더퍼스트 ▲익산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인화 행복주택 ▲기타 공공임대주택 등 4개 주택별로 15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공공임대주택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간에 맞춰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역 하늘채 더퍼스트는 이달 10~14일,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은 내달 7~11일 신청을 접수한다. 인화 행복주택과 기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



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과(063-859-554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특산물 숙지향 소비 진작...구매시 환급 지원

숙지향 사용 경영체 대상 구매 금액 20% 환급... 숙지향 구매 부담 경감·질 높은 쌍화차 제공

정읍시가 지역 특산물인 정읍지향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숙지향 구매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역 내 쌍화차집 등 숙지향을 사용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숙지향 구매 금액의 20%를 환급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영체에는 숙지향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정읍 숙지향으로 달인 질 높은 쌍화차를 제공해 정읍지향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읍은 전국적으로도 쌍화차의 명소로 유명하다. 이는 쌍화차의 핵심 원료인 지향의 주산지인 정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읍시에는 47개의 쌍화차집이 있으며 ‘쌍화차거리’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

다.

정읍지향은 품질과 역사적 가치에서도 뛰어나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읍시는 199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향 주산지로 지정됐으며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정읍지향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였다.

현재 시는 ‘정읍지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향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 상향을 위해 영농교육, 현장 지도,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지향융복합사업단 홈페이지



(www.정읍지향.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수 시장은 “정읍 지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지역 농가와 경영체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1인당 1백만원 지원...경제적인 이유로 자녀교육 포기하지 않도록

정읍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학 입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생과 청소년 한부모 본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른 대학입학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등

록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자녀의 교육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지원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항새만금신항가두서명운동 전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운영 촉구 범시민 서명 받아 영원 전담”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의 중요성과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우리 시민과 전북도

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단식투쟁도 진행중이지만 군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군산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관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여 5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가두서명운동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레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수집된 서명부는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다이로움택시, 자동결제하고 10% 돌려받아요

익산시는 지난 7일부터 다이로움택시 앱에서 다이로움 카드로 자동결제 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다이로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지역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다이로움택시 앱 마일리지 적립 5%를 다이로움 포인트 10% 지급으로 확대·변경했다.

기존에 택시요금 1만 원을 결제하면 다이로움택시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00원이 적립됐지만, 7일부터는 1,000원의 다이로움 포인트가 지급

되며, 다이로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이로움택시 앱에서 다이로움 카드로 자동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최대 2만 원 한도로 결제일 기준 다음달 25일에 익산다이로움 앱으로 지급된다. 다만, 다이로움 택시 앱을 통한 자동결제가 아닌 직접(현금) 결제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다이로움 충전 인센티브 10%를 포함하면 총 20%의 할인 효과가 발생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맛집’ 신청업소 모집...우수한 먹거리 제공

정읍시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정읍 맛집’ 신청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체인점 형태의 업소(단, 정읍 본점은 가능) ▲최근 2년 내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식재료 ▲음식 ▲위생 ▲시설·환경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맛집을 선정할 방침이다.

맛집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업소는 ▲맛집 지정패 수여 ▲외식업 영업주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우선지원 ▲SNS 홍보 ▲상·하수도로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539-6902)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 '드론 실증도시구축' 공모 선정

국비 4억8천만원 확보, 드론 간식배송·물류 배송 취약지역 주민 복지 향상 목표

따뜻한 햇살아래 가족과 함께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면서 향기로운 음료가 생각날 때 간식배달을 드론으로 받는, 행복한 상상이 올 하반기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11일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 후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모악산도립공원 관광지와 금산면 내 물류 배송 취약지역 11 곳을 대상으로 '준비 없이 떠나는 김제 모악산 소풍, 드론 간식 배달로 즐거움 Up!'과 '우리 동네 일꾼 '드론니'로 두 손 가벼운 핸드프리트 배송'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모악산도립공원의 주요 등산로와 잔디광장 등에 드론 배달점 9개를 설치해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무거운 배낭 없이도 갖 내린 커피 한 잔과 에너지를

1. 설 배송	2. 공원 배송	3. 향안 배송
<p>○형태 : 유인선과 육지간 택배물, 편의점물품, 치킨 등 배송, 농수산물 택배물 (기종 3개 이상, 배당구간 10~20분)</p>	<p>○형태 : 도심공원, 캠퍼스/야외장, 해수욕장, 관광지 등에 편의점물품, 치킨, 김밥 등 배송 (기종 3개 이상, 배당구간 10~20분)</p>	<p>○형태 : 일반 주변 청탁 선박 및 해상 레저지역에 음식물과 선박용품, 낚시·생활동공 등 배송 (기종 1~3개, 배당구간 30분 이상)</p>
<p>○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p>	<p>○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p>	<p>○배송업체 : 국산드론제작업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50kg 이하 배송기체 4대 이상)</p>
<p>○배송주기 : 구간당 주 1~2회</p>	<p>○배송주기 : 주중-주말</p>	<p>○배송주기 : 주중-주말</p>
<p>○배송비 : 5천원 (10km, 3kg3회 박스 이내, 5kg4회 박스, 8천원)</p>	<p>○배송비 : 3천원 (5km, 3kg3회 박스 이내)</p>	<p>○배송비 : 배송업체 설정</p>

김제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채워줄 간식을 주문하면 사람이 부족한 카페가 아닌 대자연 속에서 나만의 힐링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마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대중교통 노선이 축소되고 마을 내 슈퍼마켓 폐점으로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지는 '식량 사막화' 현상의 확산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44.1%에 달하는 금산면의 2개 마을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복지물품 등 배송을 시작으로 드론 배송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시민이 즐거운 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간부공무원들 혁신 역량 강화 나서

5급이상·주무팀장급 공무원 144명 참여, '행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의 정책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상하농원에서 고창군청 간부공무원 144명이 참여한 '행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군은 올해 군정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과 디지털역량(AI 및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강화에 중점을 뒀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담당할 김용성 교수(충남대 기술교육학과)는 "AI 기술의 활용 능력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달라지고, 이는 곧 지역간, 국가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I가 지역의 발전과 행복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상하농원에서 고창군청 간부공무원 144명이 참여한 '행정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르면 5월께 대선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등 정치·경제적 격변기에 간부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직 변화를 선도할 행정 리더들의 인식 제고와 혁신적 사고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진성길 일원 지정

'진성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상권 살리기 기여 기대

부안군은 지난 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안읍 진성길19 일원의 상권을 '진성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성 골목형상점가는 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부안읍 봉덕리 860번지 주변 골목을 구역으로 해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구역의 상권회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 상권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화영 부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지속 발전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점포 기준을 30개소에서 20개소로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제1호로 지정된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추가 상권을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유지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susanna9128@koreakr)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63-540-3978)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법준작가, 부안군에 매창시서각작품가증 기증작 44점, 10일부터 부안매창테마관서 전시

부안군은 지난 7일 군수실에서 지천 우암 김법준 작가의 매창시서각 작품 44점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귀중한 작품을 군에 기증한 김법준 작가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함께 전달했다.

기증된 매창시 서각 작품은 부안매창테마관에서 오는 10일부터 6월 18까지 '다시 피어나는 매창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전시해 군민들에게 매창의 시를 새로운 예술작품 형태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각(書刻)이란 전통적으로 돌이나 나무 등의 소재를 조각칼이나 정·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해 깎아 내면서 문자를 조각하는 활동 또는 작품을 의미한다.

김법준 작가는 50여년 전 서각에 발을 디딘 후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대한민국명인미술대전·대한민국중근서예대전·정읍사전국서화대전·한국서협전북서예대전·새만금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지천서화연구실 및 정읍시생활문화센터에서 서각 강사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출신 조선 중기 여류 시인 이매창의 문학정신을 군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김법준 작가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증해 주신 소중한 작품을 전시 등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1593명에 상해보험료 지원

고창군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대상은 78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1593명의 종사자로,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총 2만원이며 그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고창군이 추가로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상해보험료 지원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나온누리약국·새종로약국, 공공심야약국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약국을 기존 나온누리약국(남북로 231), 화타약국에서 나온누리약국과 새종로약국(중앙로 92)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새종로약국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며, 매주 일요일은 휴무다. 공공심야약국은 3년째 운영중인 나온누리약국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며 둘째·넷째주 토요일 휴무한다.

시는 지난 2023년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로 처음 운영한 이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취약시간대 복약 상담, 응급실·달빛어린이병원의 처방전 조제 등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개소를 추가해 총 2개소로 확대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은 "관내 약국이 대부분 1인 약사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365일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근무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김제시민의 건강한 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복지환경국 직원들, 어르신들에 한끼 나눔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7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12명의 김제시 복지환경국 간부 직원들이 천사무료급식소에 모여, 음식을 배식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을 포함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이 일손을 도왔다.

천사무료급식소는 김이 모락모락 풍기는 갖 지은 흰 쌀밥과 추운 속을 달래는 설렁탕, 찜조림한 김자반과 주전부리가 될 약과, 구운계란, 떡을 제공하고 있다. 풍성한 식사를 받아든 어르신들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주름진 양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박 복지환경국장은 "평소 복지업무를 하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돕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식사를 제공해드니 더욱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행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공직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에서 공무원들은 자율적인 봉사 나눔 실천 확산에 앞장섰으며 이들의 꾸준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도 더욱 향상시킬 것을 다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조사원 6명 지원 받아

고창군보건소가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6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자격요건은 20세 이상의 성인이며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로 업무 경력자 또는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우대한다.

올해 조사기간인 오는 5월16일-7월31일까지 고창군 조사 표본가구를 선정된 주거용 주택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 건강 수준과 의료이용 등에 대한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조사원 모집 기간은 10~20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조사원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고창군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봄철 산불예방 총력

고창군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산불재난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군청 관계부서와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고창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4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전문예방화대원 49명을 비롯해 산불감시원 56명을 배치했다. 대원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과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제도, 산불진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 밖에도 고창군은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지속 추진 중이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산불대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산불은 소중한 산림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군민들께서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자 19일까지 모집

부안군 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문)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청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군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조건은 부안만의 특색있고 독창적인 체험 부스 운영이 가능한 개인, 동호회, 사회단체 등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문 위원장은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다채롭게 만들어줄 체험 부스 모집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임실군,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임실군이 올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예고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예고제는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상태를 점검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다만 민원 발생 및 특별점검은 사전예고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사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사설 정상 가동 및 훼손 방지 여부, 방지사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등이며, 이를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등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사용 중지 1개소, 고발 1개소 등 4곳에 행정처분 등을 한 바 있다. 심 민 군수는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해 청정 임실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옥정호, 재개장...벚꽃축제 기대감↑

지난 1일 재개장 이후 첫 주말 4,500여명 방문... "조화로운 경관 조성 더욱 힘써"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재개장한 가운데 봄맞이 관광객이 증가하며, 오는 4월 열린 옥정호 벚꽃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이달 5일 첫 번째로 열리는 축제인 옥정호 벚꽃축제를 비롯해 계절꽃 경관을 보기 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사계절 꽃 식재 및 편의시설 정비 등 붕어섬 생태공원의 방문객 맞이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먼저 붕어섬 생태공원의 봄맞이 준비는 올해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가을에 봄에 피어날 추석구근인 튜립,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등 총 36,000여본을 식재했다

개장 전 2월 말에는 꽃밭 40개, 초화박스 400개를 주요 동선에 배치하고 봄 추위와 서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 작업도 진행했다.

올해는 3월 초순에 영하의 기온이 예보돼 있어, 주요 화단 및 화반의 봄꽃은 얼어붙은 땅이 녹고 기온이 풀리면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재개장한 가운데 봄맞이 관광객이 증가하며, 오는 4월 열린 옥정호 벚꽃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네모네, 팬지, 루피너스 등 봄꽃 18종 27,4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3월 중순부터는 붕어섬의 각종 꽃과 나무가 옥정호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심 민 군수는 "천만관광 임실시대로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색있고 조

화로운 경관 조성에 더욱 힘써, 다시 찾고 싶은 붕어섬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며 "옥정호 벚꽃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맞는 먹거리 등 실컷 즐기면서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반딧불 고급 한우 생산 주력 맞춤형 미네랄 블록 지원... "생산비 절감·소득증대 기대"

무주군이 한우 고급육 생산에 주력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족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은 지역 내 한우사육 농가다.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은 국내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IRG) 건조물 첨가한 국내 개발 미네랄 블록으로 무주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사육 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한우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2021년도 축산원에서 연구한 국내산 미네랄 블록의 축종별 배합비와 그 조제 기술을 바탕으로 축

종별 사료 급여 프로그램 및 사양 표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강해경 팀장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한우 번식 효율과 수태율 증진까지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사료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본격 착수

진안군이 금강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금강수계기금으로 2,486백만원이 확정됐으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내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해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된다. 소득증대·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지원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및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구분됐다.

특히 진안군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안전 교정마을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금 1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수변구역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 제15대·16대 회장 취임식 개최

장수군은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군민회관에서 제15대·16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장수군의회의원들, 여성단체 회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명한 제14대·15대 김광순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장수군 여성의 권익 향상과 나눔활동에 힘써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기여해왔다. 김광순 회장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이 전달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순 회장의 이임에 따라 제16대 회장으로 이숙자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김광순 회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숙자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며 "장수군도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마을 속 이야기가 무르익다'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 발대식

진안군은 제18회 진안군마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마을축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34개 마을 주민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마을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마을 축제가 되기 위해 서로를 응원했다.

발대식에서는 먼저 지난해 진행된 마을축제 영상 시청과 올해 마을축제의 마을 선정 과정과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진안군 마을축제는 '마을 속 이야기가 무르익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도농 교류, 축제 마을 간 교류, 진안교육협력의 연계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마을이 하나되는 축제를 만들고 생활인구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인석 마을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마을 축제는 마을 간 모니터링을 통해 서로 배우고 보완해 함께 발전하는 마을 축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산불방지 대책본부가동...산불예방 주력

산불감시원·진화대·시설 등 활용, 집중 감시 및 예방 활동 추진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무주군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국민 모두가 누리는 숲' 조성에 매진할 방침으로 산불 감시 및 진화대 91명을 분부 및 산불 취약지 등에 배치하고 입산 통제구역 관리를 비롯한 소화 시설 설치·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또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6개 읍면 151개 마을) 캠페인'을 통해 3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산불진화차량 활용형 '산불조심' 가두방송도 진행 중이다.

산불 취약 지역에 무인 감시카메라 7대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물 근처 화

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산불 소화 시설도 설치·점검하고 있다. 불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는 입산통제구역(5,244ha, 등산로 폐쇄 구간 39.5km) 관리에도 집중한다.

지난 6일에는 군정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해 무주경찰서와 무주소방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점, 무주군부대(진안·무주대대), 무주군 산림조합, 무주우체국 등 8개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그간의 산불 발생 현황 및 여건,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그리고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무주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황인홍 부장(무주군수)은 "산불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조기진화와 산불 정리, 뒷불감시 요령 등에 관한 산불진화대·감시원 교육을 실시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이 자연특별시 무주의 가장 자원을 명심해 이를 지키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정성을 쏟을 것"이라며 "특히 3월은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가 크고 대형 산불 위험도 큰 만큼 맞춤형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양수발전소 선정 위한 발빠른 홍보

11개 읍면 순회설명회 개최, 주민공감대 형성...유치 성공 기대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3월 한 달 동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협력 발전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읍·면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양수발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 성공에 가장 필수적 요소인 주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진안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단합된 힘이 바로 유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진안양수발전소 사업 예정지인 주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방문해 양수발전소에 대해 소개한다.

더불어 지난 8일~9일까지 2일간 주천면에서 열린 '진안고원 고로쇠 축제'에서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진안군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최적의 입지임을 알리고

양수발전이 진안군에 가져올 다양한 기대효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세수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와 지방소멸위기의 우리지역을 되살릴 최고의 국책사업이다"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하나된 힘으로 유치 성공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복지사업 정보 모음집 '알쓸장집' 배포

장수군은 군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장수군 복지사업 모음집(알쓸장집)'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알쓸장집'은 군민들이 복지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로,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 다양한 복지사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

서비스 ▲군민안전보험 지원, 전입세대 지원 등 장수군만의 특별 복지사업(22개 사업) ▲관내 사회복지시설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마린 주민복지과장은 "장수군 복지사업 모음집을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군민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 모두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차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기관 추가 지정

장수군이 차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기관 6개소를 '차매안심가맹점' 및 '차매극복선도단체'로 추가 지정해 환편을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된 차매안심가맹점 5개소는 ▲장수읍 2개소 ▲계곡면 2개소 ▲계남면 1개소로 차매안심개선 활동, 차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배회 및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임시보호 등 차매안전망 구축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차매극복선도단체는 천천교회로 지정됐으며 차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뿐 아니라 차매환자들이 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점숙 보건사업과장은 "차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차매안심가맹점과 차매극복선도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차매 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매안심가맹점 44개소, 차매극복선도단체 10곳, 차매극복선도학교 4개교를 지정·운영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차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주민 대상 송전선로 건설 정보 공유 '총력'

무주군이 지난 7일 무풍면에서 시작해 25일까지 6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345KV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인제영 과장은 "최근 무주군을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까지 오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군 차원에서 검토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각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장회의를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마을 방송,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내용을 알리고 임지 선정과 확정, 건설 운영 등의 시기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갈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는 국책사업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남원시 산내면,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 개최

새봄을 맞이해 37번째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지난 8일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일원에서 개최됐다.

산내면 발전협의회(회장 양재웅)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고로쇠 약수축제는 산내면 농약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축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와운마을 천년송 걷기대회, 초청 가수공연, 고로쇠를 활용한 이벤트 및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더불어 지역 먹거리장터, 농산물 판매장과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됐다.

특히 올해 고로쇠 축제 산내면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함께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와 도토리를 활용한 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약수는 타 지역 고로쇠보다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변비에 이롭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무기질 및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이서면 '이서천사 빨래방' 주 5회로 확대 운영

완주군 이서면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이서천사 빨래방'을 기존 주 1회 운영에서 주 5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서천사 빨래방은 지역 내 이불 빨래 등 대형 세탁물의 자가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세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노인돌봄 생활지도사 등 봉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집에서 빨래감을 수거한 뒤 세탁해 다시 대상자 가정으로 배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 이불 빨래가 어려운 A씨는 "그동안 주 1회만 이용 가능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하기가 더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서정에너지,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 원 기탁

서원필 대표 진안군 제1호 2천만 원 기부자... "지역발전-취약계층 복리 증진 위해 쓰이길 바란다"

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는 지난 7일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서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이 올해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진안군 제1호 2천만원 기부자이다.

(주)서정에너지는 전주 소재의 태양광설치공사 등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체이다. 서원필 대표는 진안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와 저소득층 및 취약



서정에너지 서원필 대표는 지난 7일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서원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진안의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발전과 취약계층 복리 증진을 위해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서원필 대표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풍요롭다. 기부금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뜻깊은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시청지점, 제휴카드기금 전달

총 1억 6,934만 원 전달...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휴카드기금 발생누계액 17억 7,907만 원

익산시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휴카드기금 1억 6,934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NH농협 진원욱 익산시지부장, 김수영 익산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제휴카드기금은 익산시와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시청지점이 맺은 협약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보조카드 사용금액의 0.1~1%를 적립해 마

련된 금액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1억 2,184만 원, 공무원 복지카드 2,897만 원, 보조카드 1,853만 원 등 총 1억 6,934만 원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휴카드기금 발생누계액은 17억 7,9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진원욱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 제휴카드기금 1억 6,934만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남원시 금동, 자매결연도시 영천시 동부동 방문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와 사회단체들은 지난 5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영천시 동부동을 방문하여 영·호남 화합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방문에서 남원시 금동은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남원누리시민,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홍보하여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다.

특히,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동부동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독려했다.

김봉래 금동장은 "자매결연을 맺은 두 지역이 오랜 기간동안 왕성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금동과 영천시 동부동은 1998년 12월 10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27년 간 꾸준히 교류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한식 뷔페 '새참수레' 영업시간 확대

완주군 지역 농산물을 먹거리 재료로 활용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새참수레'가 이달부터 영업시간을 확대 운영했다.

그동안 새참수레는 점심에만 영업해 왔지만, 저녁 시간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해 더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저녁메뉴는 한방수육, 버섯요리, 단호박피자 등 기존 한식 점심 메뉴와 동일하며, 저녁 영업은 17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각종 모

임 단체 예약(063-261-4279)도 진행하며, 매주 첫째 주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이다.

한편, '새참수레'(삼례읍 삼례역로 73)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완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취두리로드,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 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체 취두리로드가 지난 7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강동진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무주군의 장학사업에 뜻을 보태게 돼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한수철판 황성만 대표,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

한수철판 황성만 대표가 지난 4일 운암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운암면 쌍암리 출신인 황성만 대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철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한수철판을 운영하며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고향에 기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성만 대표는 "임실은 저의 고향으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 소중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임실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규현 운암면장은 "매년 고향 발전을 위하여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황성만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가 실질적인 임실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망성농장 장양원 대표,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성금 200만 원 전달

익산시는 장양원 망성농장 대표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양원 대표는 지역에서 전북오늘신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거 하림 그룹에서 30년간 육계사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망성농장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지역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농장 수익의 일부를 다이로움 나눔 공간에 기탁했다.

장양원 대표는 "현재 망성에서 육계 50만 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수고한 익산시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주변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가득 담은 기부를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장양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올해도 다이로움 나눔공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미세먼지가 높은 날! 건강생활수칙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외출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보건용마스크 착용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충분한 수분섭취
-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 차단

〈一事一言〉



극우 전체주의 퇴치는 더 강한 민주주의로(1)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3·1절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극우 집회가 열렸다.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고 참여자의 연령·지역·성별이 다양해진 느낌이다. 단상에 오른 연사의 연설 내용에는 3·1 독립 정신을 기리는가 하면 4·19 의거 찬양,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통일 완수, 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 등이 섞여 있다. 뉴라이트 근본주의 이념의 특징들이 희석된 혼합 형태이다.

기독교인들이 예배 형식으로 집회를 유도하지만 단상에는 불교 승려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와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소리칠 땐 환호성이 터진다. 국회의원으로부터 반정치, 반지성의 선동이 마구 나오는 현상은 놀라울 뿐이다.

본 집회의 저편에서 인기 극우 유튜브가 주도하는 소규모 집회의 참여자 연령대는 더 낮아진다. 아이를 대동한 부모가 맨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생이 연단에 올라 “종북세력은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살아라”고 소리친다. 여성 발언자, 특히 청년층이 많아진 본 집회의 연단에서는 어느새 양성평등이 탈성된 것 같다.

한때 노인들이나 모이던 태극기 집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고립되었던 극우가 어떻게 이토록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극우 집회가 장·노년층의 구린 태를 벗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모종의 설계가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척결’은 이들이 공유하는 전략적 구심점이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제시한 전략 목표를 극우 세력이 내면화한 것이다. 이 집회에 한껏 고무된 내란의 수괴는 ‘갑동적’이라고 화답했으며 중요 가담자인 김용현은 서신으로 “헌법재판소를 처단하자”고 선동했다.

정치적 선동과 조직적 확산, 대중 동원이라는 극우 대중운동의 틀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다. 자신의 지위가 하락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상실과 분노의 세대가 그 선동에 화답했다.

윤석열이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나간 석 달, 헌정을 수호하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윤석열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활력이 넘치는 나라, 희망을 말하는 정치, 통합을 이루는 사회를 향한 대개혁을 외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저 헌법재판이 어떻게 조기 대선이 어떻게 하는 지루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높은 물가에 서민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서민의 산소호흡기가 되어야 할 추경 예산은 언제 통과될지 타박이 없다.

야 6당이 탄핵 국면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모양이지만 민생이나 사회개혁의 의제를 채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협의체를 무엇 때문에 만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극우로 경

도되는 시민들에게 야당은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여겨진다.

민주주의가 외로운 사람, 불안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절박한 사람들은 민주적 질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된다. 여기에 사회 갈등을 촉진하는 종족 사업가(ethnic entrepreneur)들이 등장하여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중국이나 북한, 아당 때문이라고 속삭인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만큼 전체주의의 힘을 얻는다.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의 허약한 지점을 공격하면서 성장한다. 극우의 광장에서 힘을 부여하는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기독교식 재림사상이다. 너절하고 번거로운 민주주의는 혼란과 폭력을 막을 수 없으므로 우파 기독교 사상이 그 공백을 대신한다. 종교적 태도는 적과 동지로 사람을 나눈다. 이제 목사님은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너는 누구냐”고 묻는 대심문관이 된다. 시민이 직접 심문관이 되어 동료 시민을 감시하는 검문과 색출이 실행된다. 극렬 시위대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시진핑 XXX라고 외쳐봐”라며 검열한다.

그 다음으로 위생 감각이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우리의 순수한 공동체에 침투한 일종의 기생 바이러스다. 이런 이방인들은 일자리를 빼앗고 전염병을 퍼

뜨릴지도 모른다. 극우 광장에서 아동과 여성, 청년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한다. 더러움에 대한 혐오는 동성애자, 이슬람인들에게도 적대감을 표출한다.

그 다음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자위권 의식이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무력하기 때문에 제도 바깥에서 왕국을 따로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유 마을이라는 공동체 구상이나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한 출산 장려로 자신들만의 자급자족형 삶을 지향한다. 이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극우 세력은 군인이나 경찰 출신들을 집회에 초청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자유 통일의 전사를 자임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하자

전북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이는 지역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도내 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전북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협약에서는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아 자유 마을이라는 공동체 구상이나 장려로 자신들만의 자급자족형 삶을 지향한다. 이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극우 세력은 군인이나 경찰 출신들을 집회에 초청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자유 통일의 전사를 자임한다.(계속)

계약학과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협약에 따라 대학과 기업이 일정 규모의 유학생을 채용하고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핵심산업 위주로 맞춤형 계약학과를 늘리고 기업들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토록 유도해서 유학생들이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협약 내용에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학생들이 창업할 경우 초기 자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법률 및 세무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도내 창업보육센터나 스타트업 지원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 및 정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유학생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이 졸업 후에도 전북에 머물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커리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내의 많은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북도의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 지원, 계약학과 확대, 창업 지원, 지역 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기업 연계 강화 등 다방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그래야 전북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문 화 재 열 전

귀신사 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탑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05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날 / 이동순

꽃은 피었다가 왜 이디지 속절없이 지고 마는가	언젠가는 모두 이렇게 다 떠나고 끝까지 내 곁에 남아 나를 호젓이 지키고 있는 것은 다만 빈 그림자뿐이려니	나를 놓지 못하는가 이 봄날에 왜 그저 모든 것이 아쉽고 허전하고 쓸쓸한가 만나는 것마다 왜 마냥 서럽고 애뜻한가
봄은 불현듯이 왔다가 왜 이디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가	그림자여 너는 무슨 인연 그리도 깊은	
내 사랑하는 것들도		

시인 약력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대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마왕의 잠'이 당선돼 등단했다.

1989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됐다. 충북대 국문학과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영남대 명예교수다. 시집으로 개발물, 물의 노래,

지금 그리운 사람은, 철조망 조국,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 등이 있다. 2003년 민족서사시 홍범도(전5부작10권)를 발간했다.

전북의 오늘을 기록하다...

JBT 전북타임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진북동)5층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